

# Special Thanks to The KWC Participants

지난 6월에 있었던 Korea Wine Challenge(이하 KWC) 2022에 출품한 와이너리 가운데 특별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이번호 두 번째 연재를 이어간다.  
포르투갈의 명문인 'Adega de Pegôs'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와이너리 'Barkan'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장영수



## Adega de Pegôs

이 와이너리는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보아(Lisboa) 바로 인근에 자리한 이름난 와인 산지인 세투발(Peninsula of Setubal, DO)에 있다.

이 산지는 포르투갈 공식 DO 산지로 지정된 곳이며 아주 독특한 페루아로 인해 이 나라에서 새로 각광 받고 있는 테이블 와인의 명산지이다. 토양은 화산회와 사토로 되어 있으며 자중해성 기후대에 들어 있어 수량이 넉넉해 포도의 경작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이 산지는 이베리아 반도의 최서단, 대서양에 면해 물류의 거점이기도 한 수도 리스보아와 지호지간에 자리하고 와인의 대량 소비와 유통에 매우 유리한 입지를 보이고 있다. 한 때 세투발은 마테이라와 더불어 포르투갈의 포티파이드 와인의 명산지로 알려져 왔었다.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이 테이블 와인의 수요에 따라 훌륭한 산지로 변모하고 있다.

Adega de Pegôs는 1958년에 설립된 매우 유서깊은 와이너리이다. 수년째 한국의 KWC에 질 좋은 와인을 보내고 있어 이 컴퍼티션의 주최 측인 <Wine Review>가 특별한 감사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다. 제 18회 KWC 2022년에 보낸 와인은 총 8종으로 이 가운데 다수의 와인이 영예의 수상을 하기도 했다.



**GOLD**  
Adega De Pegões  
Grande Reserva 2017



**TROPHY**  
Encostas da Arrábida  
Moscatel Roxo 2014



**GOLD**  
Adega De Pegões  
Alicante Bouschet 2017



**SILVER**  
Adega De Pegões  
Touriga Nacional 2018



## Barkan Winery

제 18회 KWC 2022에 참가한 이스라엘 진객의 와인너리이다. 이 와인너리는 19세기에 창업했으며,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2000년, 대대적인 혁신을 꾀해 미래 지향적 복합 와인너리로 탈바꿈했다. 이스라엘 중부 지역의 훌다(Hulda) 키브츠에 자리하고 있다. 와인의 숙성, 저장, 포장, 유통, 연구 등 일관 작업을 가능케 하는 거창한 복합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발칸 와인너리는 그들의 새 먹거리로 다양한 포도종을 개발하고 있다. 사실 이 복합시설은 최첨단 기술을 수용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생태적 와인너리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은 금년 초에도 4개의 생산자가 <Wine Review>와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협업을 갖기도 했다. 발칸 와인너리는 지난 KWC 2022에 처음 참가 하면서 여러 종의 와인을 보내어 많은 부문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현재 미수입 와인너리이며, 조만간 좋은 한국의 수입사가 국내 시장에 유통하기를 기대해 본다. ㄴ



**GOLD**  
Altitude 585  
2016



**SILVER**  
Beta Chardonnay  
2021



**BRONZE**  
Platinum Cabernet Sauvignon  
2019



**BRONZE**  
Altitude 624  
2018